

치 사

광복 66주년을 맞아 태허(太虛)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겨 보는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700년의 한국 역사에서 불교는 우리 민족사상과 문화의 원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삼국·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찬란한 문화를 형성해 왔고, 조선조 500여년의 오랜 박해와 억불(抑佛)에서도 서릿발 같은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이 면면히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완전히 훼손된 굴절의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을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용맹정진하신 분이 태허스님이십니다.

태허스님께서서는 용문사에서 출가하고, 봉선사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이후 만해스님, 손병희, 김법린선생을 만나 3·1운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신분으로 3.1운동 당시 스님들을 규합하여 양주·양평·포천 등지에서 비밀리에 독립문서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의 선봉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시다 투옥되어 2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또한 스님은 중국으로 망명을 떠날 때와 중국의 중산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스님으로서의 신분,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중국 각지에 있던 애국동지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펼치시며 임시정부가 통합될 때도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임시정부

의 내무차장과 국무위원을 역임하시며 해방 후 신민당 지도 위원에 선임되어 민주화에 앞장서며 포교와 정치·외교활동 등 독립·민주화 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계가 일제의 잔재(殘在)를 청산하고 자주독립 국가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원력행(願力行)이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국가보훈처와 항일운동단체연합회, 독립기념관이 후원하여 개최되는 ‘운암 김성숙선생 생애와 독립사상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는 대단히 뜻 깊은 불사(佛事)라 하겠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자유롭고 행복한 새나라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는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의 독립이라는 절제절명의 대명제 앞에서는 사상도, 지역도, 종교도 모두 하나로 뭉쳐야만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태허스님에게 있어서 불교가 사상 및 이념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태허스님의 장례식이 조계사에서 봉행된 것과 스님의 말년의 일기장에 나오는 다양한 불교 내용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정의와 대중복리를 위해 사회악에 맞서 싸우신 것은 바로 불교의 파사현정(破邪顯正)정신을 바로 실천한 선지식(善知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태허스님의 사상 속에는 불교의 자비사상에 입각

한 정치관, 사회관을 살펴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화엄(華嚴)사상이나 선(禪)사상에서 중시하는 원융사상(圓融思想)의 편린(片鱗)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사상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회통을 지향하고 일생은 다사다난했지만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고 평가하더라도 결코 손색이 없는 훌륭한 불교운동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으로, 독립투사로, 임정요인이며 정치가로서 시대적 중책을 다하신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스님이 그토록 염원하시던 평화적인 통일국가 건설이 이룩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 두 번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 스님의 전모(全貌)를 살펴보는 모자람이 있으나 교계의 명성 높으신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토론이 펼쳐질 만큼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 발제와 토론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운암김성숙 선생기념사업회와 관계자 여러분, 문도회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세미나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태허스님의 부처님가르침에 의지하여 펼친 독립운동과 조국통일의 염원을 되새겨 보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2011) 8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